"수능 못볼라"…애타는 섬지역 수험생들

풍랑주의보·해수면 상승 등 뱃길 불안에 하루전 친척집·모텔 전전

전남 올 수능원정 193명…교육청, 예산난에 고사장 설치 엄두 못내

15일 신안군 하의면(도) 장미양(여·46)씨는 하루 종일 바다를 보며 마음을 졸였다. 고된 '원정 수능길'에 오르는 딸 지수(18)양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더구나 이날 하의도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뱃길이 끊기고, 슈퍼문의 영향으로 16일까지 해수면 수위가 역대 최고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장씨의 걱정도 더 커졌다.

신안군 하의면 하의고 3학년 지수 양 등 5명은 대학수학능력시험(17일) 하루 전인 16일 고사장이 있는 목포로 향한다. 하의고 학생들은 수능 시험을 보기 위해 전남지역에서는 가장 먼길을 뱃길로 이동해야 한다. 쾌속선으로는 1시간10분에서 1시간20분이 걸린다. 하의고 학생들은 목포 친척집 등에서 하룻밤을 청하고 고사장으로 향하게 된다.

장씨는 "딸이 배를 타야 하는데 날씨가 좋지 않은 게 가장 큰 걱정"이라며 "지수가 수능을 무사히 치르고 희망하는 영어교육과에 꼭 들어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지수 양은 "날씨가 안 좋고 수능 날까지 혼자 가서 준비하는 것에 대해 부모님의 걱정이 크다"며 "수능을 보고 부모님을 만나 시간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안 도초고 학생 58명도 같은 날 낮 12시께 도초화도선착장에서 쾌속선을 타고 1시간 거리의 목포로 향한다. 앞서 수험표를 챙기기 위해 목포로 나왔다가 풍랑주의보로 뱃길이 막히면서 섬으로 돌아오지 못한 최종렬 교감이 학생들을 맞을 예정이다. 도초고 수험생들은 고사장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수능을 보게 된다.

전남 도서지역 수험생들의 '원정 수능'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학교가 있는 섬에 고사장이 마련되지 못하면서 해마다 수능을 앞두고 하루나 이틀 전에 뭍으로 나가 시험을 보고 있다.

더구나 올해는 68년 만에 나타난 '슈퍼문'의 영향으로 목포와 여수 등 지역의 해수면이 역대 최고수준으로 높아지면서 불편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또 이날(15일) 전남 해안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전체 55항로(92척) 중 22항로(45척)를 오가는 선박의 운항이 중단되면서 학부모들은 근심에 싸였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수 양처럼 올해 원정 수능 길에 나서는 전남지역 수험생은 8개 학교 193명이다. 지역별로는 신안 하의고 5명·안좌고 22명·임자고 6명·도초고 58명, 완도 완도금일고 23명·노화고 46명, 여수 여남고 25명, 진도 조도고 8명 등이다.

해당 학교에서는 해마다 섬에 사는 학생들을 위해 고사장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청은 예산과 인력 문제 등을 이유로 설치를 엄두 내지 못하고 있다. 대신 수험생 1명당 교통비와 숙박비 명목으로 7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창균 도초고 교장은 "평소 생활하는 집에서 시험장으로 향해도 수능에 대한 중압감이 클 텐데, 학생들이 집과 부모님을 떠나 타지에서 하루를 보내고 고사장에 들어설 것을 생각하니 벌써 걱정된다"며 "섬에 고사장을 만드는 문제에 대해 학교에서도 수차례 검토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신안에 연륙교가 만들어지면 안좌도나 도초도에 고사장을 만들어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상청은 16일 새벽께 전 해상에 내려진 풍랑주의보가 해제되겠다고 예보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슈퍼문'의 영향으로 해수면이 크게 오른 15일 오후 2시30분께 목포시 동명동 선창 주변 도로 한쪽 차로가 바닷물에 침수됐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kwangju.co.kr

전남 해안 오늘까지 저지대 침수 주의보

'슈퍼문' 영향 여수·목포 등 피해

68년만에 나타난 '슈퍼문'의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목포와 여수를 비롯한 전국 해안가 저지대 곳곳이 바닷물에 잠겼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지구와 가장 가깝게 접근한 '슈퍼문' 영향으로 바닷물을 당기는 인력이 강해져 15, 16일 전국 곳곳의 해수면이 역대 최고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었다.

실제로 목포와 여수의 해안 저지대에 침수현상이 발생했다. 15일 오후 2시 30분께 목포 동명동 4거리 주변 도로 한쪽차로 100여m가 20여분 동안 10㎝ 높이의 바닷물에 잠겼다. 동명동 4거리 도로는 상습 해수 침수 지역으로 전날에도 바닷물에 침수된 바 있다. 목포시는 예상되는 침수에 대비해 16일에도 주차를 금지하도록 조치했다.

여수는 이날 오전 9시 28분께 해수면이 최고 372cm 달하면서 국동 롯데마트 앞과 돌산 진모지구 돌산도서관 저지대 등이 30여분여 바닷물에 잠겼다. 여수시는 이날 오후 9시 39분 그리고 16일 오전 10시 13분, 오후 10시 22분, 17일 오전 10시 59분, 오후 11시6분께 이들 지역에서 총 5차례의 침수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보하고 재해문자 전광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을 방송 통해 주의를 당부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시각장애인 배려…광주 밤 9시43분까지 시험

17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치러진다.

하지만 광주에서는 장애인 수험생이 응시, 밤 9시43분까지 수능시험이 실시된다.

광주에서 이 시각까지 수능시험이 치러진 사례는 지금껏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게 교육계 설명이다. 전남에서는 오후 6시57분에 종료된다.

교육당국은 한 명의 중증 시각장애인(1급) 수험생의 시험이 끝나는 시각까지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뒷바자리를 하느라 바짝 긴장하고 있다.

장애인 수험생들의 경우 정상인과 똑같은 내용으로 시험을 치르지만 방법은 다르다. 점자 시험지로 치르며 시간이 일반수험생의 1.7배다.

시험 당일 오전 8시10분까지 시험장 입실을 마쳐야 하는 것은 같다. 하지만 시험시간이 1.7배 늘어나면서 4교시(한국사, 탐구영역)가 오후 8시10분에야 끝난다. 여기에 5교시(제 2외국어)를 치르고나면 시험 종료 시각은 밤 9시43분이다. 서울대를 염두에 둔 수험생이라면 제 2외국어를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수학 영역의 경우 점자정보단말기가 제공되고 점자 해독이 가능한 교사를 시험감독관으로 추가 배치한다. 도시락을 먹을 때도 보조인력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광주교육청은 밤 늦게까지 진행되는 시험을 위해 한국전력 광주전남본부와 연계, 수능 시험 전력담당자를 지정해 정진 등에 대비토록 했다.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수험생이 편안하게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1100억대 허위계산서 제출 징역형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중)는 허위세금계산서교부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55)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20억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조세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무자료 거래를 조장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관여한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금액이 매우 큰 점 등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석유판매 회사를 가장한 소위 '자료상 업체'를 설립해 놓고 2009년 1월28일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수십여개의 업체에 대해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지 않고도 마치 공급하거나 매입한 것처럼 합계 약 1147억원이 넘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해 세무당국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

광주 서구청서 오늘 '정부 이동신문고'

광주 서구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정부 3.0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주민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상담서비스로, 서구주민뿐만 아니라 광주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다.

일반행정·문화·교육·노동·산업·농림·환경·도시계획·교통·도로·세무·주택·건축·경찰 등 모든 공공행정 분야 민원을 상담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소비자원·한국사회복지협의회·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업해 법률·소비자피해·사회복지·지적(地籍) 분쟁 등 생활 속 궁금증도 풀어준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무료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권익위는 즉시 해결 가능한 사안은 상담 현장에서 처리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팀(☎ 044-200-7321~3) 또는 광주 서구 감사담당관실(☎ 062-360-7018)에 문의하면 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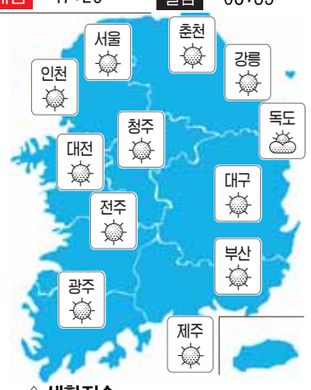
해뜸 07:08 / 해짐 17:26 / 달뜸 19:18 / 달짐 08:35

내일 수능 따뜻해요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 **지역별 날씨** (℃)

광 주	맑음	3/16	보 성	맑음	2/16
목 포	맑음	4/15	순 천	맑음	4/17
여 수	맑음	9/16	영 광	맑음	1/15
나 주	맑음	-1/17	진 도	맑음	3/16
완 도	맑음	5/16	전 주	맑음	2/15
구 례	맑음	0/16	군 산	맑음	2/14
강 진	맑음	2/17	남 원	맑음	0/15
해 남	맑음	1/16	흑 산 도	맑음	9/12
장 성	맑음	-1/16			



◇ **바다 날씨**

		오전 풍향	오전 파고(m)	오후 풍향	오후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5	북~북동	0.5~1.0
	먼바다	북~북동	1.0~3.0	북~북동	0.5~1.5
남해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1.0
	먼바다(동)	북~북동	1.0~2.0	북~북동	1.5~1.5
	먼바다(서)	북~북동	1.0~2.5	북~북동	1.0~2.0

◇ **생활지수**

뇌졸중	높음
감기	매우높음
자외선	보통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8:10	02:54
	20:44	15:35
여수	03:40	10:13
	16:13	22:22

◇ **주간 날씨**

17(목)	18(금)	19(토)	20(일)	21(월)	22(화)	23(수)
6/17	6/18	11/17	10/16	8/15	4/8	0/6